

인터넷 중독자의 자기개념과 자기도피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이 경 민[†]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이 자기개념의 하위영역(물질·정신·사회적 자기영역)에 대한 평가차원(부정평가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기도피경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판별해주는 변인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자기개념의 하위영역인 물질·정신·사회적 자기영역 각각의 부정평가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중요도에 있어서는 물질적 자기의 중요도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자기도피경향은 높은 반면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가장 잘 분류해 주는 변인은 자기도피경향, 정신적 자기의 부정평가도, 정신적 자기의 이상-현실 불일치도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 자기개념,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교신저자 : 이 경 민, (412-2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6 101호
전화 : 031)972-3184 E-mail : beliefs@freechal.com

인터넷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도구로써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적 손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하여 학업적, 대인-관계적, 그리고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Young, 1999; Griffiths, 1999; 송명준, 허유경, 이은정, 권정혜, 2001), 많은 학자들이 지나치게 인터넷에 몰입하는 것을 인터넷 중독이라고 진단하고, 동시에 이것이 대인관계 및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Brenner, 1997; Egger, 1996a, Morahan-Martin & Schumacher, 1997; Scherer & Bost, 1997; Young, 1996b, 1997, 1998a).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유의미하게 우울 수준이 높고(윤재희, 1998; Young & Rodgers, 1998), 현실에서 자기 불일치가 높으며(송명준, 2000),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유진, 2001). Young (1997)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Amstrong과 Phillips, Saling(2000)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예측하는 데에는 낮은 자존감이 좋은 예측인자라고 하면서 인터넷 사용의 중독적 요소로 인터넷이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탈출하게끔 해준다고 하였다.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현실에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부적절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고 싶거나 혹은 가상 현실에서나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의 여러 영역에서 자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자기’라는 인지적 요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학자마다 ‘자기’에 대한 독특한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자기개념(self-concept), 자기인지도(self-schema),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 자기지식(self-knowledge), 자기체계(self-system), 자아(ego)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James(1980)는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자기개념을 정의하였고, 자기를 크게 세 가지 자기영역 즉 물질적 자기(material self), 정신적 자기(spiritual self), 사회적 자기(social self)로 범주화하고 있다(권석만, 1996). 물질적 자기는 자기와 관련된 물질적 측면 또는 소유물들로서 가장 중심부에 신체가 위치하고 다음에 의복, 집, 소유물 등이 차례로 포함된다. 정신적 자기는 개인의 내적 또는 심리적인 제반능력과 성향을 지칭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기는 반성적 과정의 결과로서 자신의 성격, 지적 능력, 지식, 가치, 가치관, 인생관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자기는 개인이 동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지칭한다. 가족, 애인, 친구, 직장동료들로부터 받는 사랑, 명성, 명예 등이 사회적 자기를 구성한다. 권석만(1996)은 자기 개념의 다면성과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14개의 하위영역과 8개의 평가차원으로 구성된 자기개념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인터넷 중독자들의 자기개념에 대한 선행연구(고유진, 2001)에서는 성격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자기존중감, 정서안정감,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대인신뢰감을 측정하였고, 인터넷 중독자들의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종범(1999)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자존감을 비교하였을 때,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류인균 등(200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자들이 비중독자들에 비해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

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중독자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개념은 각각의 자기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평가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James(1980)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자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도와 같은 긍정적 측면의 평가차원을 고려한 인터넷 중독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 개념의 세부적인 영역과 평가차원을 측정하고 여러 자기 영역과 차원간의 상대적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 집단의 자기개념에 대한 특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aumeister(1991)는 자기 도피 이론에서 개인의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가 생길 때 그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자기 비난과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유발되면 인지적 몰락이 초래되어 자기 억제력을 무력화 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자기도피성향이 다양한 정서장애 및 부적응적 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민섭(1993)의 자기도피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우울증, 알콜 및 약물남용 집단과 정상 성인 집단 간에 자기도피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수진(1993)의 연구에서도 약물사용의 유무에 따른 자기도피성향 수준을 비교한 결과 약물 사용 집단이 비사용집단에 비해 자기도피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준(2000)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현실을 기피한 채 온라인상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며 인터넷 중독자들은 비중독자

들에 비해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불일치 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다. 주리애와 권석만(2001)은 인터넷을 역기능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에 대한 탈억제, 무책임성, 현실세계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도피처로서의 인터넷 사용, 환상이나 공상적인 역할 연기로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자 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자기도피성향은 중독 현상과 매우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기도피성향이 인터넷 중독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몰락의 상태를 측정하는 자기도피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도피성향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Sarason & Sarason, 1985).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Cohen & Hoberman, 1983). Turner(1981)는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었을 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낮은 지각 수준은 우울(Karuse, 1987), 알코올 의존(Ames & Roitzsch, 2000)과 같은 병리적인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중독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들(송원영, 1998; 김지윤, 2000; 서승연, 2001; Krout, Lundmark, Patterson, Kiesler, Mukopadhyay & Scherlis, 1998)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불편감, 고독,

외로움, 사회적 지지 지각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중독자들은 외로움이나 고독을 더욱 많이 느끼며 대인관계 예민성이 더욱 높고 사회적 지지 지각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Young(1997)은 설문 조사로 인터넷 사용 이유에 대해 조사했는데, 병리적 인터넷 사용자들에게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으며,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실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여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에서 권정혜(2000)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연구했을 때는 사회적 지지 중자가 존중감 지지만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을 예언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 중독과 다차원적 구조를 고려한 자기개념과 인지적 몰락과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시사되나 인터넷 중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그리고 사회적지지 지각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입증한 바 있으나 인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에 자기개념과 자기도피경향 그리고 사회적지지 지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판별해주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700명(남자, 388.; 여자, 31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8세 범위는 만 18세에서 46세였다.

도구

다면적 자기개념 검사

권석만(1996)이 제작한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한 자기개념검사이다. 이 척도는 14개의 자기영역을 James(1890)가 구분한 방식대로 경험적 자기를 물질적 자기, 정신적 자기, 사회적 자기로 구분하였으며, 다양한 자기영역을 평가하는 8개의 차원(중요도, 긍정 평가도, 부정 평가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 개선 가능 정도, 고민 정도, 만족도)으로 구성되어 있다(권석만, 1996). 세 가지 다중 영역 중 물질적 자기(외모, 건강, 재산)와 정신적 자기(자기조절능력, 지적능력, 학업성적)와 사회적 자기(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영역의 부정평가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 중요도에 해당하는 질문만을 선택하여 총 3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정평가도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를 반영하는 평가 차원이며, 이상-현실 불일치도는 이상적 자기(ideal self)와 현실적 자기의 괴리 정도를 의미하며, 기대-현실 불일치도는 의무적 자기(ought self)와 현실적 자기의 괴리 정도를 의미한다. 기대-현실 불일치도는 중요한 타인을 부모로 설정하고 부모에 의해 기대되는 자기개념과 현재 상태간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도는 각각의 영역이 자신의 행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영하는 차원으로서 자기 영역에 미치는 영향도가 클 것이라고 가정될 수 있는 차원이다. 하위차원별 내적 합치도는 중요도에서 .67, 이상-현

실 불일치도에서 .75, 기대-현실 불일치도에서 .76, 부정평가도에서 .65였고,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자기도피척도

자기도피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Baumeister (1991)의 이론에 입각하여, 신민섭(1992)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몰락 상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7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용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도피의 경향이 높은 것이고,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대인관계 지지지각 설문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대인관계 평가척도(Interpersonal Social Evaluation List: ISEL)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지지지각 설문지는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것을 번안한 것으로 평가적지지, 소속지지, 자존감지지, 유형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0점에서 48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음을 의미한다. Cohen과 Hoberman이 보고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60-.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7였다.

인터넷중독 설문지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제작한 인터넷 중독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이나,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등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완전히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다. 합계가 50점이 넘을 경우에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내적 신뢰도는 윤재희(1998)의 연구에서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을 나타냈다.

인터넷 사용 질문지

설문지 작성자의 성별, 나이, 전공, 학년, 인터넷 사용 시간, 인터넷 접속 이유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절차 및 분석방법

서울 및 경기도 소재 2개, 충청도 소재 1개 대학교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인터넷 중독 설문지의 총합계가 50점이 이상인 경우 인터넷 중독 집단으로 분류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인터넷 사용실태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비교를 위해 중독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성별, 연령, 전공, 학년)에 따라 짝 지운 비중독자를 하부 집단별로 나누는 다음, 각 집단으로부터 중독자와 같은 수의 표본을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n=82). 또한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집단간에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알아보았다.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자기개념과 자기도피경향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가장 잘 판별해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터넷 중독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인터넷 사용 실태

설문지 작성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인터넷 중독 및 사용자의 경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비중독자는 607(88.1%)명이고, 중독자는 82(11.9%)명이다. 무응답은 11명 이었으며 전체 여성 중 27(8.7%)명이 중독으로 분류되었고 전체 남성 중 55(14.5%)명이 중독으로 분류되었다. 성별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남자에게서 인터넷 중독 집단에 속하는 빈도가 더 많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chi^2(1, N=689) = 5.34, p < .05$. 연령은 만 18세에서 46세의 범위로, 평균연령은 20.8세(표준편차 2.93)이며, 인터넷 중독과 비중독 집단간 연령의 $\chi^2(3, N=689) = 3.42$ 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중독과 비중독 집단의 성별로 집단을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다.

인터넷 사용 실태에서는 인터넷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그리고 인터넷 접속 이유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일일 평균 사용 시간에서는 비중독의 경우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 사용자가 19.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3시간 이상의 사용시간부터는 중독집단의 비율이 비중독 집단의 비율보다

표 1.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비중독 집단 분포

	비중독	중독	계
전체	607(88.1%)	82(11.9%)	689(100%)
성별			
남성	325(53.5%)	55(67.1%)	380(55.2%)
여성	282(46.5%)	27(32.9%)	309(44.8%)
계	607(100%)	82(100%)	689(100%)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chi^2(7, N=669) = 56.42, p < .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이유를 살펴보면, 비중독자는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중독자는 게임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chi^2(4, N=689) = 19.22, p < .001$.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자기개념,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자기개념,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

이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인 인터넷 중독 점수와 자기개념의 하위영역,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간 상관관계수 값이 표 2에 제시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14개의 심리적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은 상호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그 중에서 자기도피경향이 인터넷 중독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에 따른 자기개념,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변량 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자기개념,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중독자의 성별, 연령, 전공, 학년에 따라 짝지운 뒤 무작위 추출된 비중독집단과 중독 집단의 자기개념,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었다. 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2

KCS I

표 3. 인터넷 중독, 비 중독집단에 따른 자기개념,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중독			비중독		
	N	M	SD	N	M	SD
자기개념						
중요도	80	17.62	3.91	81	16.59	3.91
부정평가도	79	8.15	3.59	82	4.21	2.79
이상현실 불일치도	78	9.73	4.60	79	5.82	3.50
기대현실 불일치도	81	9.25	4.51	82	4.98	3.44
자기도피	81	7.33	7.05	82	2.21	2.89
지각된 사회적 지지	77	34.0	8.21	82	40.65	5.25

표 4.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에 따른 자기개념,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변량 분석 결과

종속변인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자기개념					
중요도	집단간	42.89	1	42.89	2.79
	집단내	2440.30	159	15.34	
	전 체	2483.19	160		
부정평가도	집단간	622.19	1	622.19	60.24***
	집단내	1642.22	159	10.32	
	전 체	2264.422	160		
이상현실 불일치도	집단간	599.41	1	599.41	35.86***
	집단내	2590.86	155	16.71	
	전 체	3190.28	156		
기대현실 불일치도	집단간	743.46	1	743.46	46.20***
	집단내	2590.54	161	16.09	
	전 체	3334.01	162		
자기도피경향	집단간	1065.62	1	1065.62	36.81***
	집단내	4660.04	161	28.94	
	전 체	5725.66	162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집단간	1760.61	1	1760.61	37.65***
	집단내	7340.43	157	46.75	
	전 체	9101.05	158		

*** $p < .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개념, 자기도피 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개념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터넷 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보다 자기개념이 더욱 부정적이며, 이상-현실 불일치도와 기대-현실 불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집단은 자기도피성향이 더 높고, 사회적 지지 지각을 더욱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에 따른 자기개념 하위 요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 중독 집단보다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자기의 각 하위영역에서 부정평가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도에 있어서는 물질적 자기의 중요도만이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 중독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자기의 중요도와 사회적 자기의 중요도에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가장 잘 구별해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 중독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자기개념의 각 하위영역과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판별함수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표 5참조).

판별 변인에 대한 분석방법에 단계적(step-wise) 분석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Wilk's Lambda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순서대로 독립변수가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자기도피가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 중독 집단을 가장 잘 구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신적 자기의 부정평가도와 정신적 자기의 이상-현실 불일치도 순이었다. 이 세 가지 이외의 자기개념 하위 영역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두 집단을 구별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판별함수에서 제외되었다. 함수 1의 고유값과 설명변량 및 유의도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함수 1은 유의수준

표 5. 독립변인의 진입 순서에 따른 판별분석 통계치

투입단계	투입변인	Wilk's Lamda	F값
1	자기도피	.884	75.46***
2	정신적 자기 부정평가도	.862	45.95***
3	정신적 자기 이상-현실 불일치도	.854	32.54***

*** $p < .001$

표 6. 자기개념 하위영역,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판별함수의 고유값, 설명변량 비율 및 유의도

함수	고유값	각 함수의 설명 변량	누적 설명 변량	정준상관	Wilks' λ	χ^2	자유도	유의수준
1	.171	100	100	.382	.854	90.21	3	.000

표 7. 자기개념 하위영역과 자기도피경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비중독 변인에 입각한 판별함수 분석의 판별결과

집단	사례수	예측집단	
		비중독(%)	중독(%)
비중독	581	565	16
	(100)	(97.2)	(2.8)
중독	79	62	17
	(100)	(78.5)	(21.5)

정확도 88.2%

이 .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판별함수를 통해 두 집단을 재할당한 분류결과표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의 판별함수는 중독집단의 21.5%, 비중독집단의 97.2%가 정확히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는 88.2%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즉, 세 변인에 의해 판별함수는 82.2%의 분류정확도를 가지고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 중독 집단을 잘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이 자기개념의 하위영역인 물질·정신·사회적 자기영역에 대한 평가차원(부정평가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기도피경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판별해주는 변인을 알아보았다.

700개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 집단으로 분류된 표본은 82개로 전체 11.9%에 해

당하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중독 집단에 속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접속 이유를 살펴보면, 중독집단은 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비중독 집단은 정보 및 자료 검색을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중독 집단은 메일과 정보자료 검색처럼 인터넷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중독집단은 게임에 빠져드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자기개념이 더 부정적이고,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상태와 현재상태의 괴리정도가 높으며, 타인의 관점에서부터 기대되는 의무적인 자기와 실제적인 자기의 불일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도피경향은 높은 반면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에 따른 자기개념 하위영역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자기영역 각각의 부정평가도, 이상-현실 불일치도, 기대-현실 불일치도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물질적 자기의 중요도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터넷 중독, 비중독자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인터넷 중독자들이 비중독자들 보다 자기와 관련된 물질적 측면 즉, 외모 및 신체적 매력, 건강, 재산 및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 더욱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자들은 물질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반면, 실제 자신의 모습은 이상적 자기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소망하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 더욱 몰입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가장 잘 분류해 주는 변인은 자기도피, 정신적 자기의 부정 평가도, 정신적 자기의 이상-현실 불일치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변인들에 의해 두 집단은 82.2%가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더 자기도피경향이 높고, 자신과 관련된 정신적 측면 즉 자기조절능력, 지적능력과 학업성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 자기개념, 자기도피경향, 사회적 지지 지각 중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가장 잘 변별해주는 변인은 자기도피경향이였다. 사회적지지 지각은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 보다 낮게 지각하고 있으나, 판별분석 결과 사회적지지 지각은 유의미하게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변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사회적지지 지각이보다 자기도피경향이 인터넷 중독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간적 조망의 축소, 구체성, 장기적 목표의 결여, 의미의 거부, 탈역제, 수동성 및 무책임성, 정서의 결여, 비합리적 사고 등으로 기술되는 자기도피경향의 특성이 인터넷 중독자들의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넷에 중독된 내담자와 상담을 하거나 심리 치료적인 개입 시 이러한 인터넷 중독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정서와 상황,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보다 깊이 내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기대에 모순을 겪게 되어 생겨날 수 있는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자신에 대

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이 강해져서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인터넷에 더욱 몰두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이상적인 자기와의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돕고, 이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다면적 구조와 다차원적 구조를 갖고 있는 자기개념 검사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자들의 자기개념을 다양한 영역과 차원에서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 중독, 비중독 집단간의 여러 자기영역 점수와 차원점수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자기개념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자기도피경향이 인터넷 중독을 매우 잘 변별해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도피경향이 인터넷 중독자들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것으로써 인터넷 중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접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Young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중독은 니코틴, 알코올 등 물질적 중독과 달리, 행동 지향적 중독으로서 그 중독여부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중독자들이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신뢰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자를 보다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자체에 다양한 용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의 중독적인 사용으로 이르게 되는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 하위유형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척도와 각 하위유형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집단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적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들은 좀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핵심변인이라고 밝혀진 변인들, 인터넷 보상경험, 낮은 자존감, 자기통제 등의 변인들을 함께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유진 (2001). 인터넷 중독집단의 성격특성 및 자기개념연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 (1996). 자기개념의 인지적 구조와 측정도구의 개발 - 서울대학생 표집의 자기개념 특성-.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vol. 31, No. 1, 11-38.
- 김종범 (1999).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윤 (2000). 사이버 공간 사용자들의 지각된 대인관계지지와 자아방어기제 사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인균, 하지현, 양은주, 김영미, 장창곡, 우종인 (2000). 인터넷 중독의 정신병리. 정신병리학, 제 9권, 제 1호, 16-26.
- 박수진 (1993). 인지적 몰락과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승연 (2001). 일상적 스트레스, 몰두 성향, 사회적 지지와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준 (2000). 인터넷 중독자의 온라인 및 면대면 커뮤니티케이션 만족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준, 허유경, 이은정, 권정혜 (2001). 인터넷 중독: 중독적 특성, 중독의 결과 및 중독자의 하위유형. 고려대학교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Vol. 5, No. 1, 311-323
- 송원영 (1998).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민섭 (1993).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 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리아, 권석만 (2001). 인터넷을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유형분석: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Vol. 10, No. 1, 93-115.
- Ames, S. C., & Roitzsch, J. C. (2000). The impact of minor stressful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on cravings: A study of inpatients perceiving treatment for substance dependence, *Addictive Behaviors*, 25, 539-549.
- Armstrong, L., Phillips, J. G., & Saling, L. L. (2000). Potential determinants of heavier Internet usag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Computer*

- Studies*, 53(4), 537-550.
- Baumeister, R. F. (1991). *Suicide as escape from self*. Basic Books.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V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 879-882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Egger, O. (1996a). Internet and Addiction. <http://www.ifap.bept.ethz.ch/~egger/ibq/address.htm>
- Griffiths, M. D. (1999). Dependence on computer games by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 82(2), 475-480.
- Krause, N. (1987).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in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27(3), 301-308.
- Krout, R., Lundmark, V., Patterson, M.,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 1017-1031.
- Morahan-Martin, J. M., & Schumacker, P. (1997).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Sarason, I. G. & Sarason, B. K. (1985).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Scherer, K., & Bost, J. (1997). *Internet use patterns: Is there internet dependency on campus?*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August.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Young, K. S. (1996b).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http://netaddiction.com/articles/newdisorder.htm>
- Young, K. S. (1997). *What make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r*.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ugust, 15, 1997. Chicago: Illinois.
- Young, K. S. (1998a).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Cyber Psychology & Behavior*, vol.1, No.1. <http://netaddiction.com/articles/cyberpsychology.htm>.
- Young, K. S., Rodgers, R.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Cyber Psychology & Behavior*, 1, 23-28. <http://netaddiction.com/articles/cyberpsychology.htm>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

원 고 접 수 일 : 2004. 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4. 9. 10
게 재 결 정 일 : 2004. 11. 11

Self-concept, Escaping from the Self and Social Support of Internet Addictive User

Kyoung-Min Lee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ternet has become a powerful instrument of life, but many researchers worry that internet has an addictive attribute and can make negative effects on the lives of the people who us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s followings: First, it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among self-concept, escaping from the self, perceived social support between addicted and non-addicted internet users. Second, it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mong sub-areas of self-concept between addicted and non-addicted internet users. Third, it was to find out variables which could explain internet addiction and discrimination between addicted and non-addicted group. In this study, subjects were 700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hey were classified by the internet Addiction Test scores. Of all subjects, 689 were classified in the addicted group and 82 were in non-addicted one.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addicted group evaluated themselves more negatively in self-concept than the non-addicted group. Addicted users group members also had significantly higher tendency of escaping from the self than non-addicted users group members. And addicted group perceived less social support than non-addicted group did. Second, Althoug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most of the sub-areas of the self-concepts, only the material self-area showed difference in importance dimension. Third, the variables which discriminate between addicted and non-addicted group were the tendency of escaping from the self, mental negative evaluation dimension, and mental ideal-real discrepancy dimension of self-concept. Those three variables could correctly classify the groups(88.2%).

Key Works : internet addiction, self-concept, escaping from the self, perceived social support